

# 단국대학교 2017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 인문계열 문제 및 답안 (오후)



전형유형	논술우수자
수험번호	
성명	

문제 1

□ 출제 의도

-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요약·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이다. 각 제시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는 ‘버팀목’이라는 상징을 사용하여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힘이 되는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가]의 화자는 도움을 받은 자로서 자신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삶을 살고자 함을 보여준다.
- [나]는 ‘의자’라는 상징을 이용하여 다툼이 아니라 서로에게 위로와 의지가 되는 관계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나]는 화자인 어머니를 내세워 아픈 자에게 안식을 주고, 힘든 자에게 도움을 주는 관계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나]에서 [가]의 상징어와 가장 유사한 개념의 단어는 ‘의자’이다.
- [다]는 공정 무역의 예를 들어 선진국과 후진국이 경쟁과 착취의 관계가 아니라 상부상조의 관계가 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제시문 [나]의 ‘의자’가 의미하는 입장에서 공정 무역의 의미를 읽어내면 된다.

□ 자료 출처

- [가]: 박종호 외(2014), 『고등학교 문학』, 창비, 274쪽  
복효근, 「버팀목에 대하여」
- [나]: 한철우 외(2014), 『고등학교 문학』, 비상교육, 96쪽  
이정록, 「의자」
- [다]: 박영목 외(2014),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천재교육, 219쪽  
강수돌, 「착한 커피와 공정 무역 이야기」

□ 평가 기준

1)번 문항

- 주제를 드러내는 단어를 찾는 능력을 평가함(5점)
  - \* [가]에서 ‘버팀목’을 찾아내면 5점, 그렇지 않으면 0점을 부여함
  - \* ‘버팀목’ (가장 적절)
  - \* 그 외의 다른 단어들 혹은 제시문 밖의 단어로 답할 경우 (적절하지 않음)
- 주제어 ‘버팀목’이 상징하는 내용을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함(5점)
  - \* 제시문에 근거한 답안이어야 하며, ‘버팀목’이라는 상징이 서로 돕고 사랑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2)번 문항

- [가]의 주제어와 유사한 개념의 단어를 찾고(5점) 그것을 중심으로 [나]의 내용을 제대로 요약하는 능력을 평가함(5점)
  - \* [나]에서 ‘의자’를 찾아내면 5점, 그렇지 않으면 0점을 부여함
  - \* ‘의자’를 중심으로 다툼이 아니라 서로에게 위로와 의지가 되는 관계의 중요성을 제대로 설명하는지 여부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나]에서 찾은 단어가 의미하는 입장에서 [다]의 주장을 요약하는 능력을 평가함(10점)
  - \* [나]의 ‘의자’가 나타내는 입장에서 [다]의 공정 무역의 개념을 제대로 요약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 ‘의자’는 약자를 배려하고 서로 돕는 삶의 자세를 상징함. [다]는 공정 무역을 통하여 선진국과 후진국이 경쟁과 착취의 관계가 아니라 상부상조하는 관계가 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음

□ 예시 답안

○ 1번 문항

[가]의 주제를 상징하는 단어는 ‘버팀목’이다. [가]는 ‘버팀목’이라는 상징을 이용하여 다른 존재에게 도움이 되는 헌신적 관계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죽은 나무가 버팀목이 되어 산 나무를 서게 한 것처럼, 죽은 아버지와 지금은 사라진 이웃들이 시 속 화자에게 버팀목이 되었으며, 화자 역시 앞으로 누군가에게 버팀목 역할을 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다.

○ 2번 문항

[가]의 주제어와 유사한 개념의 단어는 ‘의자’이다. [가]에서 버팀목이 다른 존재에게 도움을 베푸는 헌신적 존재의 상징이라면, [나]의 ‘의자’ 역시 약자에게 위로와 안식을 제공하는 존재를 상징한다. [나]는 화자인 어머니의 입을 빌어 꽃과 열매 등 자연물들 사이의 관계가 그런 것처럼, 인간과 자연, 그리고 인간들 사이의 관계도 타자의 입장을 헤아리고 도움을 주는 관계가 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다]는 선진국과 후진국의 관계를 경쟁과 착취의 관계가 아니라, 상부상조, 즉 호혜의 관계가 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의 입장과 유사하다. 공정 무역은 선진국이 후진국을 경쟁 대상자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야 할 대상으로 간주함으로써 이들이 서로 ‘의자’의 관계가 되도록 돕는다.

**문제 2**

□ 출제 의도

- 이 문제는 연구 윤리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한 의도에서 출제하였다.
- 이 문제는 비판적 사고력과 논증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는다.
- 제시한 자료 [가]와 [나]를 비교·대조하여 읽고, 이를 근거로 하여 [다]와 [라]의 문제 상황을 파악한 뒤, 비판의 준거를 고려하여 연구자의 태도를 비판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 [가]와 [나]의 공통점은 ‘연구자의 윤리 문제’를 다룬 점이며, 차이점은 [가]는 ‘연구 과정’과 관련된 윤리를 논의하였으며, [나]는 ‘연구 결과’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했다는 데 있다.
- [다]에서는 ‘연구 과정’과 관련하여 어떤 윤리적인 태도를 지녀야 할 것인지에 대해 ‘행위 자체’를 중시할 것인지, 아니면 ‘행위 결과’를 중시할 것인지에 따라 의견이 나뉠 수 있다. 그러나 [가], [나]의 입장에서 볼 때 피 실험자에게 위험성을 알리지 않는다면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라]에서는 ‘연구 결과’와 관련한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 갈릴레이는 과학적 발견을 처세에 이용한 셈이다.

□ 자료 출처

- [가]: 이진석 외(2014), 『고등학교 사회·문화』, 지학사, 42쪽
- [나]: 강운선 외(2014), 『고등학교 사회·문화』, 미래엔, 43쪽
- [다]: 변순용 외(2014),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천재교육, 33쪽  
원문은 구영모(2010), 『생명 의료 윤리』, 동녘
- [라]: 정창우 외(2014),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미래엔, 111쪽  
원문은 송성수(2009), 『과학 기술의 개척자들』, 살림

□ 평가 기준

- 총 30점 배점 가운데 [가], [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는 능력에 10점, 이를 논거로 [다], [라] 연구자의 태도와 윤리적인 문제 상황을 추론하는 능력에 10점, [다], [라]에서 추론한 연구자의 태도와 윤리적 문제를 비판하는 능력에 10점을 배정한다.
- [가], [나]의 내용을 이해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는 능력(10점)
  - \* 공통점과 차이점을 모두 진술한 경우 10점
  - \* 공통점이나 차이점 가운데 하나만 진술한 경우 5점
  - \* 공통점과 차이점을 진술하지 못한 경우 0점

- [다]와 [라]에서 연구자의 태도와 윤리적인 문제 상황을 추론하는 능력(10점)
  - \* [다]에서 연구 과정과 관련하여 연구자의 태도와 윤리적 문제 상황을 추론한 경우에 5점을 배정하고, [라]에서 연구 결과의 활용과 관련하여 연구자의 태도와 윤리적인 문제 상황을 추론한 경우에 5점을 배정함
  - \* [다]의 추론 과정과 [라]의 추론 과정이 모두 나타날 경우 10점
  - \* [다]의 추론 과정이나 [라]의 추론 과정 가운데 하나만 나타날 경우 5점
  - \* [다]와 [라]의 추론 과정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0점
  
- 연구자의 태도와 윤리적인 문제를 비판하는 능력(10점)
  - \* [다] 연구자의 연구 과정과 관련한 태도를 비판하고, [라] 연구자의 연구 결과와 관련된 태도를 비판하는 내용이 모두 적절할 경우 10점
  - \* [다] 연구자 또는 [라] 연구자의 태도와 관련된 비판이 하나만 들어 있을 경우 5점
  - \* [다] 연구자와 [라] 연구자의 태도를 비판하는 내용이 없을 경우 0점

□ 예시 답안

[가]와 [나]의 공통점은 연구자의 윤리 문제를 논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가]에서는 연구 과정과 관련하여 탐구 과정에서 연구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논의 대상으로 하였고, [나]의 경우 연구 결과의 활용이 윤리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다]에서는 생명 과학 연구 과정에서 피 실험자에게 연구의 성격과 내용을 알려야 하는가 아니면 공리적인 연구 결과를 위하여 알리지 않아도 되는가에 대한 갈등에서 연구 과정과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라]는 갈릴레이가 위성을 발견하고 그 결과를 긍정인이 되고 싶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활용한 사례에서 연구 결과의 활용과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 윤리의 차원에서 [다]의 연구자는 피 실험자에게 있는 사실을 그대로 알려야 한다. 왜냐하면 연구 결과의 공익성이 연구 과정의 윤리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선의의 거짓말이나 연구 과정에 대한 은폐는 연구자와 피 실험자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연구 결과의 진실성을 훼손할 수 있다. 또한 [라]에서의 갈릴레이와 같이 과학적인 성과를 사적인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것은 진리 탐구의 목적과 과정까지도 왜곡할 수 있으므로 지양되어야 한다.

**문제 3**

□ 출제 의도

- 이 문제는 최근 한국의 소득 불평등 추이를 나타낸 도표를 분석하여, 사회적 불평등과 정부의 소득 재분배 역할을 연계하여 해석하는 역량을 평가하고자 한 것이다. 더불어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에서 발췌한 제시문에 함축된 문제점을 도출하는 능력,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하는데 목적을 둔다.
- [가]는 사회 불평등의 의미와 다양한 형태의 사회 불평등에 대해서 언급한 글이다. 사회적 자원이 희소하고 분배가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의 개인들이 평등한 사회적 지위를 갖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소득, 교육 기회 등의 불평등이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한다고 역설한다.
- [나]는 시장 경제에 있어서 정부의 경제적 역할 중 소득 재분배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 소득 분배를 시장에만 맡겨 놓으면, 공정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상대적 박탈감이나 계층 간의 갈등 등이 야기될 수 있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해결 방안으로 다양한 소득 재분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다]의 도표는 최근 6년 동안 한국의 소득 불평등 추이를 보여준다. 현실의 소득 분배가 어느 정도 불평등한지를 측정하는 소득 불평등 지표로서 지니(Gini) 계수와 5분위 배율을 제시한다. 지니 계수는 0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지는데 값이 클수록 소득 분배가 불평등한 것이고 작을수록 평등한 것이다. 또한 5분위 배율은 최상위 20% 소득 계층의 소득을 최하위 20% 소득 계층의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값이 클수록 소득 분배가 불평등한 것이고 작을수록 평등한 것을 의미한다. 두 개의 지표를 분석해 보면, 우리 사회가 시간이 흐를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라]는 아버지가 고생했음에도 소득이 공평하게 배분되지 않고 조상 대대로 사회적 계층이 고착화되어 사회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글이다. [가]와 [나]의 제시문을 활용하여 앞서 제시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 이 문제의 출제 의도이다.

□ 자료 출처

- [가]: 구정화 외(2015), 『고등학교 사회·문화』, 천재교육, 135쪽
- [나]: 유종렬 외(2014), 『고등학교 경제』, 비상교육, 76쪽
- [다]: 김종호·안병근(2014), 『고등학교 경제』, 씨마스, 74쪽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 [라]: 박종호 외(2014), 『고등학교 문학』, 창비, 237~238쪽  
조세희.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 평가 기준

- [가]와 [나]의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함(10점)
  - \* [가]와 [나]의 내용을 바르게 설명하면 10점
  - \* [가]와 [나] 가운데 하나만 설명하면 5점
  
- [다]의 도표에서 유의미한 문제를 추론하는 능력을 평가함(20점)
  - \* 소득 불평등 지표인 5분위 배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지니 계수가 증가하는 추이를 근거로 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해지고 있음을 서술하였으면 20점
  - \* 소득 불평등 지표가 의미하는 바를 제시하지 못하고 소득 불평등 심화만 제시하면 10점
  - \* 둘 다 제시하지 못하면 0점
  
- [가]와 [나]의 내용을 참조하여 [라]에 함축된 문제를 추론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능력을 평가함(10점)
  - \* [가], [나]를 근거로 [라]에서 함축하는 문제를 추론하고, 해결 방안까지 제시하면 10점
  - \* 문제 추론 과정이나 해결 방안 가운데 하나만 제시할 경우 5점
  - \* 추론한 문제나 해결 방안의 적절성, 논리적 타당성의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예시 답안

[가]는 사회적 자원의 희소성과 분배가 고르지 못함에 따른 사회 불평등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나]는 생산에서 발생한 가치를 생산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고르게 나누어 주지 못하는 소득 불평등 문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다]에서 5분위 배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지니 계수가 증가하고, 2010년과 2011년의 지니 계수도 2006년 대비 높은 것으로 보아 소득 분배가 점점 불평등해지고, 이로 인해 사회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라]에서 좋은 아버지, 열심히 일한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주머니 있는 옷을 사주지 못하고 고기를 먹일 수 없는 까닭은 [가]의 사회적 불평등을 의미한다. [라]의 사회적 불평등은, 아버지가 조상 대대로 고생만 해 왔다는 내용으로 볼 때, 계층의 고착화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계층의 고착화는 [가]에 등장하는 권력, 재산, 소득, 교육 기회, 건강, 주거 등의 자원의 고른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다. [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소득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은 국가적 차원의 대안이 필요하다. [나]에서 제시한 정부의 누진세와 같은 세금 정책, 계층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복지 정책 등은 이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

